

의학기술의 신대륙은 우리가 정보한다

정희훈, 이훈범 공동대표
(왼쪽부터)의학기술의 콜럼버스 '에이치비메디컬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의학기술의 신기원 이룩하는 '에이치비메디컬스'

얼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로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구도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빛나는 법. 2000년에 설립한 에이치비메디컬스(공동대표 정희훈, 이훈범)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의학기술의 신기원을 이뤄내고 있다.

Q 에이치비메디컬스의 주력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모근이식장치, 약물전달시스템, 혈관문합장치(신경연결장치) 등 의학기술 아이템을 개발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특허출원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R&D지향 기업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주로 성형외과 관련 계통이며 국내외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을 전문화하고 전략적 제휴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제휴기업이 제조 및 국내외 판매 등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 아이템은 이훈범 대표가 가진 전문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적용한 아이템으로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발명기술도 있습니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한 약물캐리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혈관문합시스템은 개심수술을 하지 않고도 혈관을 이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Q 현재 두 명의 공동대표만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A 저희는 기술개발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적어서

겪는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템의 제품화나 판매 등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묶인 제휴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깐요. 다만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에 선뜻 나서 줄 제휴사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기술개발 자체가 많은 시간과 자금력,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 탓에 제휴사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아이디어와 전문화된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오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에이치비메디컬스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세계적인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암 치료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다른 불치병에 대한 연구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신경연결장치나 약물전달시스템 등 획기적인 아이템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따른 장기이식도 혈관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잇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가치가 큰 의료기술을 통해 온 인류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서울벤처인큐베이터 한인배 팀장이 말하는 에이치비메디컬스

에이치비메디컬스는 의학기술의 신대륙을 개척하고 있는 선구자들보다 같다. 이훈범 대표가 보유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정희훈 대표의 열정과 맞물려 탁월한 팀워크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어 매우 희망적인 상황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무기 삼아 성공적인 보육단계를 밟아갈 것이라 확신한다.